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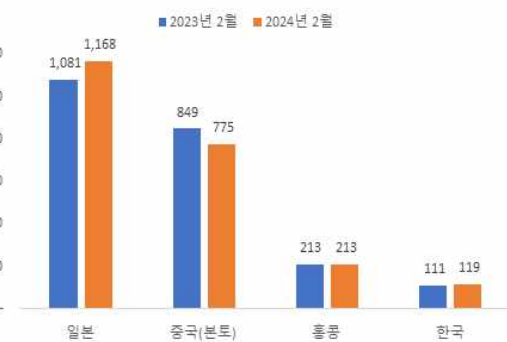
중국의 미 국채 보유 동향 및 평가

- 중국(본토기준)의 미 국채 보유액은 2013.11월에 정점(1조 3,167억달러)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어들어 금년 2월말에는 7,750억달러 수준까지 감소
 - 특히 2021년경부터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으며 중국 이외 국가들의 미 국채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
 - 최근 1년간의 미 국채 보유액 변화를 보면 일본(+872억달러), 한국(+84억달러)은 증가한 반면 중국은 740억달러 감소(홍콩은 2,130억달러로 불변)

해외의 미 국채 보유액 추이¹⁾



주요국의 최근 미 국채 보유액 증감¹⁾



주 : 1) 단위 : 10억달러(USD)
자료 : Bloomberg

-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감소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의 장기적 외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기인
 -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에 대비하여 미국에 대한 외화자산 집중을 완화*
 - * 러우 전쟁 직후 서구의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 등과 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유사시 충격을 완화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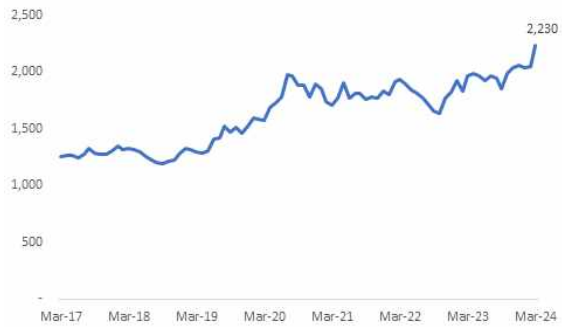
작성자 : 홍콩주재원 김민규 차장

- 또한 미국의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제기될 리스크 등에 대비하여 보유 외화자산을 금 같은 대체자산 등으로 분산

중국의 금보유량 추이(톤)



최근 금가격 추이¹⁾



주 : 1) 트로이온스 당 달러가격
 자료 : Bloomberg

- 시장참가자들은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
 - 달러화를 대신할 신뢰성있는 자산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, 유럽 등의 미 국채 수요가 견조하고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
 - 주요 원자재가 여전히 달러화로 주로 결제되는 현실에서 중국이 달러화 자산을 급격하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 등 위안화 국제화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